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신명기 24장 6-22절

- 6절 사람이 멧돌이나 그 위 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 7절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 8절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 9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 10절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 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 11절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 12절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 13절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 14절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서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 15절 그 품삷을 당일에는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하므로 그 품삷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 16절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 17절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 18절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 19절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 20절 네가 네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 21절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라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 22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4장 6절부터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 보호 규정과 그들이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권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법들 하나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기에 매우 고마운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기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삶을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세상에서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율법 정신이 있습니다.

6절에서는,

가난해서 빚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위쪽을 전당 잡지 말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맷돌이 없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이었던 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배부른 소리 말고 동물처럼 밀가루를 그대로 먹으라고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갈 존엄은 존중되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7절에서는,

사람을 유괴해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라고 명령하십니다.

「노예처럼 대한다」라는 것은 「잔혹하게 짐승처럼 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극악범죄에 내려지는 극형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8-9절에서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린 것을 교훈으로,

혹시 본인이 그와 같이 거만해져서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겸손하게 제사장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에서는,

가난한 「이웃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의 주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도와 주기위해서이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포한테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23:19)

다만, 「담보, 전당물」를 받는 것은 허락되었는데, 그때에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가지의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 「그 사람이 가난한 경우」에,

해가 질 때는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너무 가난한 사람의 마지막 재산은 「옷」입니다.

그것은 잘 때 이불로도 사용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전당물로 잡혀 이불도 없이 잠자리에 들게되면

그 잠자리에서 못된 대금업자를 원망하면서 자게 됩니다.

그 반대로, 대금업자가 해가 지기 전에 「옷」을 돌려주면,

그것을 입고 잘 수 있어, 그는 감사하며 「너를 위하여 축복할 것이며」

또한 그것은,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목해봐야 할 말씀입니다.

대금업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해가 지기 전에 전당물을 돌려주는 것은 온정이나 긍휼도 아닌 「의, 공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값싼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당연히 해야하는 「네 공의로움」, 「의」인 것입니다. 「의, 공의로움」이기에,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에서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에 대해서 명령하십니다.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서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학대하다」라는 말은 「압박, 학대, 강탈, 착취」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품삯을 당일애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품꾼」은 가난해서 모아둔 것이 없습니다.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그것(그 날의 품삯)에 그는 자신의 생명이 달려있다」라는 절실함이 있습니다.

이 품삯으로 연명해 가고 있기에, 품삯을 못받으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품삯」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날의 양식」에 의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지급이 늦어져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직역하면 「너의 안에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아놓은 것이 없는 가난한 품꾼의 살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아

아무렇지도 않게 임금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범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가족이 죄를 짓었을 경우, 그 가족은 주눅들어 생활하게 됩니다.

이것도 가난함과도 또 다른 의미로 큰 짐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가족이 그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죄로 말미암아」이지,

부모가 자식의 죄를 짊어질 필요도 없고, 자식도 부모의 죄를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범죄자의 가족이 살아갈 권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서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문자그대로는 「송사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친척이나 도와줄 가족이 없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재판을 해서는 안됩니다.

「과부」에 대해서는, 돈을 빌려줄 때 「과부의 옷을 전당 잡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한테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전당물을 잡을 수 있었지만,
「과부」한테는 그것조차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전당물없이 무조건적으로 빌려주라는 것입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들의, 이세상에서 살아갈 권리존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설이 첨가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긴 없이 이집트의 노예였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기억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에서는,
「나그네, 고아, 과부」의 불가침의 권리로서,
감람나무를 떼 후에, 그리고 포도원 밭의 남은 열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밭의 구석까지 다 베는 것과 포도원 밭의 열매를 다 따는 것을 금지 시키시어,
일부러 「그들을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그 전에부터 금지시키시고 계셨습니다.
(레위기 19:9-10, 23:22)
그것에 덧붙여, 여기서 다시 한번 명령하고 계신겁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남편을 잃고, 타국인 이스라엘에서 시어머니와 살아갈 것을 결심한 모압인이었던 룻은,
재류 외국인이며 과부였기에,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룻이 이삭을 줍던 밭의 소유자였던 보아즈는,
외국인인 룻이 이삭을 주우며 시어머니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알고,
일부러 이삭을 빼서 떨어뜨리도록 일꾼들에게 명령해서 룻을 도왔습니다.

결국, 보아즈는 룻과 결혼해 다윗왕의 증조부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는 특별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 그대로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19절)

감람나무 열매에 대해서는,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이것도 또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열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한번 수확한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며」,
역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들의 결말은,
예전에 본인들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새삼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22절)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교훈의 밑바탕에는,
자신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실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참한 노예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노예이지 않았던가,
그랬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 현재 받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어 매일 매일의 양식을 주시며 우리의 생명도 지켜주시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 받고 있는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며, 「의, 공의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받고 있는 은혜를 현재 함께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현재 기억하며, 실감할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를 보호하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현실 속에서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편이 되어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들을 현실 속에서 도와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나는 너를 도울 것이다 」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들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돕는 , 이것이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돕는 손길이 있으며,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단적으로 생생하게 나타내는 큰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